

불자 세상보기

한반도 평화운동 이제 범국민적으로



송목스님
한반도평화대회 공동집행
위원장, 조계종 포교부장

종교계가 정전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평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걷는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6·25 전쟁이 발발한 25일을 전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한다는 목적에서다.

한반도는 남북관계 경색 등 전쟁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각계의 수많은 노력에도 아직 한반도에는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계종은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봉행위원회(이하 평화대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범

어사 수록재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6월 16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군총신대회·포교원·군종교구의 주관 하에 '6.25 전사자 위문위원법회'가 열렸으며 이에 앞선 6일 현충일에는 '청소년 어린이 평화대회 사생 그리기 대회' '교리경시대회 및 한반도평화대회 동영상 공모' 등이 진행됐다.

7월에는 한반도 평화대회 세미나가 열리며, 9월에는 부산지역 사찰과 유엔 광장 및 거리를 '평화의 빛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6·25 희생자를 위한 수록재와 범회, 음악회도 마련된다.

평화를 위한 움직임은 불교계만의 것이 아니다. 천주교는 6월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달로 삼고 전국 교회에 미사 전후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달 동안 끊이지 않게 기도를 하고자 함이다. 개신교 연합단체와 NGO 등 48개 단체도 6월 26일까지 평화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든 종교인들의 마음은 하나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종교계를 넘어 사회 각계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모아지고 있다. 정치·종교·경제·시민사회 지도자 66명은 6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을 선언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맞아 남북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합의점을 도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첫 걸음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각계 지도자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 북한은 민족공동체를 함께 이뤄가야 할 협력의 상대라는데 대견제가 기반이다.

한국전쟁 당시 UN군에는 21개국(참전 16, 의뢰지인 5), 175만명이 참전해 4만명 전사해 자유 민주주의를 지켰다. 지금도 부산UN공원에는 2300명의 용사들이 안장돼있는 현실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들의 희생을 더 값지게 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 평화롭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 전체, 개개인이 기울여야 할 때다. 서로 총부리를 겨눈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아픔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자들은 부처님이 설하신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포용의 정신을 갖춰야 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스스로의 선군을 높이고 사방을 먼저 두루 살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꼭 필요한 것이다. 동북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며 보다 큰 협력을 진행해야 할 때다.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화해와 용서로 상생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세계일화의 가르침을 자비구현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불자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숭선수범하자. 불자들의 노력이 세계 곳곳에 미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때다.

社說

위기의 불교출판, 불자들 독서가 해답

인류가 지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던 것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문자의 발명과 함께 이를 담을 수 있는 종이 기술이 발전했고, 인쇄 기술도 발달하게 됐다. 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오래 전의 역사와 철학을 최대한 원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 역시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근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출판물을 통해 문서포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런 유지를 이어받은 현재 한국불교의 출판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 박람회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렸으나 2년 전부터 참가하지 않았다. 이유는 서울국제도서전이 너무 아동 위주 체험 행사로 변질됐고, 비용과 인력 대비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국제도서전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도서 나열과 할인 판매에 그치

고 있어 전체 참가 출판사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교계 관련 출판사들의 참가가 전무한 것은 불교 출판업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불교계 출판이 약체화 거듭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독자·시장·저자 층이 얇기 때문이다. 불자가 책을 읽지 않으니, 시장은 좁아지고, 저자 층도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출판사들은 재정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불자들이 책을 읽는 것이다. 지난해 불교 관련 도서 400종 중 114종이 법문 및 예시이었다는 것은 불자들이 대부분 쉬운 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쉬운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교양을 함의할 수 있도록 책을 읽어야 한다. 지적 수준이 바탕되지 않는 종교는 단순한 맹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출판 관계자의 지적은 불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금강대 유쾌한 도전 더 기다려져

설립 10년이 갓 넘은 천태종립 금강대가 하버드대의 75번째 동양학총서 《유가행자들의 불교적 토대: 인도 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에서 유가사지론과 그 수용》을 영문으로 출간해 화제다. 120여 년 역사의 하버드 동양학총서는 최고 권위의 학술총서로, 외부와 공동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책에는 금강대 정병조 총장과 김천학 불교문화연구소장의 서문으로 시작해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교수(독일 함부르크대), 반 데이 웨일 교수(미국 하버드대), 벤첸 교수(중국 스촨대), 요시무라 마코토 교수(일본 와세다대) 등 세계 유식학 전공자 34명의 논문이 실렸다.

《유가사지론》은 현장 스님 구법행의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중국 범상종을 비롯해 티베트 불교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러한 큰 비중에도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그동안 일본학계가 주도한 유식연구는 부분적 연구가 주였다. 유식관련 전세계 주

요 학자들이 유가사지론의 전반을 훑고 그 유통의 흐름을 한국 대학이 짚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높은 성과를 이룬데에는 금강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불교철학자 출신의 정병조 총장의 리더십이 큰 힘을 발휘했다. 그는 취임초부터 줄곧 인문학으로 특성화된 정예 교육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대학이 발전하려면 특성화를 통해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정 총장은 필리핀 세부의학종합대학교를 비롯해 해외의 여러 대학들을 직접 찾아가 발로 뛰며 학술교류협정 체결을 활발하게 이끌어 내기도 했다.

여기에 천태종단의 절대적인 재정적 지원도 이런 성공적 요인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라에 기여하라는 취지라는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으로도 진력하는 금강대와 정병조 총장의 유쾌한 도전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

발언대

동국대 재가이사 정관 개정 논란

재가 이사를 조계종을 통해 추천하는 정관 개정을 두고 마찰을 빚은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동국대 총동창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총동창회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종관위도 임의단체의 문제 제기에 호불호할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두 단체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감정적 문제 제기보다 대화로



덕문스님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장

동국대 총동창회가 6월 17일 제1회 동국포럼을 열고 '동국대 재단 준법 정관 채택 촉구 동문-불자 1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을 결의하고 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두 동국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날 동문들이 "부패한 스님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동국대의 발전은 요원하다. 스님 이사 정수는 3~4명이 적당하며 뒤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성토했다는 이야기에 승가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든다. 연세대 이사를 초청해 연세대의 발전 사례를 들었다고 한다. 여러 교단이 출자한 학교와 단일종단이 출연한 대학을 단순 비교한다는 점도 마음이 아팠다.

사실 동국대 이사 선임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추천과 '중앙총회' 동의를 거쳐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이미 재가이사 선임 관련 교육과 학기술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음에도 총동창회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는 종단에서 출자한 종립대학이며 조계종 종헌종법이 재단 정관보다 상위법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종단에서 이사 추천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 불리하다며 문제 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실 총동창회장인 이연택 이사 역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추천과 중앙총회의 동의를 거쳐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절차를 거쳤다.

어디까지나 정관 개정은 종단과 학교법인의 일로서 총동창회는 나설 권리는 없다. 다만 동문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일선 결의문에서도 밝혔듯이 종단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종립대학은 당연히 종단의 종법 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를 설립한 종단의 자선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종법에 따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소임을 다할 것이다.

지금도 필자는 총동창회의 의견이 애정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립보다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동국대가 발전할 수 있다.

“정관, 법에 맞게 고치자”



신관호
동국대총동창회
사무국장

이번 동국대 재단 사태를 계기로 확인된 동국대학교의 현 상황, 특히 경영 구조는 한마디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것이 동창회의 시각이다. 법에 맞게, 사리에 맞게, 투명하게, 대학답게 규칙을 만들고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애초에 없고 원칙이 들어사야 할 자리에 종법과 관행으로 포장돼 왔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25만 동문과 1천만 불자의 마음속으로부터 오래되고 간절할 바램을 대변해 재단·종단의 변화를 촉구하는 역사적인 행동을 결단하고 나섰다. '준법' 정관 채택과 그 정관에 따른 이사선임은 그런 상징성이 매우 큰 중대한 사건이다.

현행 사학 관련 법령이 정관에 반영토록 명시한 핵심 내용과 기준은 스펀체 이사선임중 설립자측 이사 1/4, 개방이사 1/4로 선임하되 △개방이사 그 자격과 절차를 정관에 명문화해야

하며 △전체 이사의 3분의1이 교육경력자여야 한다.

그러나 현 동국대 재단정관은 이사 정원 13명중 9명을 조계종 승려로 못박아 당연적 이사로 정한 총장을 빼면 이사 자리가 3인밖에 안 남아 개방이사 정수를 맞출 수 없다.

무엇보다 임명과정에서 수없이 논란이 되어 그 취지와 내용이 자명한 개방이사에 대해 종단은 "승려가 개방이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명문규정이 정관에 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경력 이사로 명확한 기준 없이 편의대로 운용하는 형편이어서 스님이 사 중에는 사찰부설 유치원 경영 이력으로 자격을 인정받는 등 의형상 법적요건은 맞췄더라도 실질에서 과연 대학 경영을 책임질 능력이냐 자격이 되는지 내부에선 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동국대 동창회는 승려이사의 숫자를 일단 7명으로 줄이고 개방이사 자격 기준과 선출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법이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동문과 외부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대학경영에 일대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만인 서명을 계기로 촉발된 동국대 지배구조 혁신은 반드시 성사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필연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국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전북지사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박경수	010-9819-8345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사주팔자)이 어떤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대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상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